

다산포럼



송 재 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얼마 전에 작고한 영국의 천재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의 멸망을 이끄는 여러 가지 요인을 들면서 우리에게 경고한 바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핵전쟁, 지구 온난화, 슈퍼 바이러스, 인공지능 로봇, 소행성과의 충돌 등이 인류 멸망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 중 소행성과의 충돌을 제외하면 모두가 인간이 만들어 낸 재앙이다. ‘인류 멸망’이라는 거대 담론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지만, 지구상의 인간이 자초한 재앙인 만큼 인류 전체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중에서 핵전쟁과 지구 온난화 문제를 짚어 본다.

북한 핵의 폐기를 둘러싸고 관련 당사국들이 숨 가쁜 외교전을 펼친 결과 어느

인류의 멸망

정도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리라는 밝은 전망이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왕조 시대애나 있을 법한 3대 세습 국가인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로 인한 핵전쟁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모든 핵 폐기해야

그러나 호킹 박사가 경고한 핵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핵도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위험하고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중국은 핵을 보유해도 된다는 논리는 난센스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여기에 인간 본래의 공격성이 발동되면 어느 때나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미국을 비롯한 기존 핵보유국들만 정의의 사자(使者)는 아니다.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도 상존한다. 컴퓨터가 오작동할 수도 있고 지도자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핵단추를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

든 핵이 없어져야 한다.

지금 지구는 병들어 있다. 지구를 병들게 한 주범은 온난화인데 온난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온실 효과로 알려져 있다. 지구가 온난화하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지구 곳곳에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사하라 사막에 38cm의 폭설이 내리고 인도에서는 모래 폭풍이 불어 14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지난해 겨울에는 극심한 가뭄과 한파로 미국 애리조나주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 내 그레이마운틴에서 야생말 200마리가량이 폐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구 온난화는 대기의 순환 패턴을 바꾸어 때아닌 한파와 폭염, 폭설과 홍수가 빈발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가을 기온이 영하 38도를 기록하는가 하면 파키스탄 남부 도시 나와브사의 기온은 섭씨 50.2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제 지구는 더 이상 건강한 지구가 아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가 지구 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가까이 와 있다”며 “때가 되면 지구는 섭씨 460도의 고온 속에 황산비가 내리는 금성처럼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8년 3월 20일 자 중앙일보)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세계 각국은 2005년에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규제하는 도쿄 의정서를 체결했고 2016년에는 197개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지구를 온난화하는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는 학설도 있지만 지구 온난화를 저지해 보려는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인간이 지구 망치는 암세포

이산화탄소는 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공장이나 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석유·석탄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많이 배출된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이산화탄소는 인간이 이루어 낸 산업화의 부산물인 셈인데,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화가 절대선(絶對善)이 아님을 이제 는 깨달아야 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호킹 박사의 경고는 귀담아들을 만하다. 우리는 ‘인간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다’라는 말이 실감 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북극곰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결국 언젠가는 인간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社 說

잇따르는 5·18 증언 진실 규명 앞당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새로운 기록물과 증언 중 시민군의 트럭이 접근하자 명령에 따라 과제인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80년 5월 당시 수배 중이었던 박석무(76)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5·18 광주 의거-시민투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이라는 제목의 기록물을 광주일보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박 이사장이 항쟁 직후 서울 은신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필로 작성한 원고지 140장 분량의 이 기록물은 ‘10 일간의 광주 항쟁’을 일자별 상황과 발생 원인, 의의, 교훈 등 8개 장으로 나눠 정리했다. 그는 최초 발표 시점을 ‘5월 19일 계림동 앞’이라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계엄군의 만행과 항쟁의 한계 등을 상세히 담아냈다.

3공수여단 15대대 통신대 하사로 진압군에 투입된 김연철(61) 씨도 80년 5월 당시 시민군 등 8명을 광주교도소 남서쪽 인근에 가매장했으며, 당시 보안대 요원들이 시신에서 소지품을 모두 꺼내 희생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광주일보에 털어놴다. 부대원과 함께 방어를 맡던 중 시민군의 트럭이 접근하자 명령에 따라 조준 사격을 해 시신 3구를 수습한 뒤 다른 시민 사망자 5명과 함께 매장했다는 것이다.

광주일보보 는 또 최근 공개된 ‘5·18 미 공개 영상’의 촬영자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국군 기무사의 사진을 입수해 공개했다. 여기엔 80년 5월 27일 전남 도청에서 급남료를 바라보며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는 양복 차림의 한 인물이 담겨 있다.

이들 증언과 기록물은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안대 요원들이 촬영한 암매장 관련 사진이 남아 있다면 실종 시민들을 찾고 암매장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공개 영상의 경우 계엄군과 시민군의 대치 상황을 상세히 담겨 있지만 집단 발포나 헬기 사격 등 진압 장면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원본의 존재 여부와 촬영자 규명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한 증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 인재로 드러난 순천만 무인케도차 사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스카이크루브(무인케도차)가 하루에 두 번이나 추돌,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관제사가 수동 제어 작동 중 ‘위치 값’을 잘못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 역시 어김없이 인재(人災)였던 셈이다.

그제(13일) 오후 12시 20분께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역을 출발해 문학관역으로 가던 ‘스카이크루브’ 무인케도차 한 대가 급정거한 뒤 앞차를 들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문학관역에서 정원역으로 돌아오던 다른 차 2대가 추돌하는 등 3차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순천경찰서는 당시 근무했던 세 명의 관제사를 불러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위치 값’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잘못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제사들이 자동 제어 장치를

작동할 때는 ‘위치 GPS’를 설정해 차량 위치를 파악하는데 수도 제어일 때에는 ‘목표 지정값’으로 바뀌 줘야 하지만 한 관제사가 착각한 채 운행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순천만 무인케도차는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의 순천문학관까지 지상 3~4m 높이에 설치된 케도를 따라 시속 40km로 운행하고 있다. 2014년 4월 도입 당시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눈길을 끌었던 무인케도차는 개통 이후 4년 만에 추돌사고가 발생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자체 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있지만 안전 매뉴얼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제 관제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모노레일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고 세부적인 운영 내용과 안전 매뉴얼의 명문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청춘 특·특



전 경 훈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뽑아 봐야 그놈이 그놈이여.” 요즘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등 돌린 민심을 자신의 표로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는 다르다’며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선거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들은 ‘이번에는 다르겠지’하는 심정으로 후보들의 정책, 지역에서의 활동 등을 판단하여 투

표를 고려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이 일을 잘못했다고보다 시민들이 정치를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무관심 한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한다. “마트에서 생필품 하나를 살 때에도 타 사 제품과 비교하고 출시일은 언제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등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나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결정하는 선거에서는 왜 후보자들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심지어 투표조차 안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 등을 보고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인지 스스로 검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인물이 아닌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정치학에서는 투표 경향성에 대한 이론으로 ‘전망적 투표’, ‘회고적 투표’라는 말이 있다. ‘전망적 투표’란 말 그대로 미래에 있을 긍정적인 측면을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이 움직인다는 이론이다.

‘회고적 투표’는 유권자가 이전 정권 혹은 현 집권자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투표하는 경향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현 정부의 업적, 행보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여당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광주·전남에서 85%에 육박하는 만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회고적 투표’ 즉,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줄 가능성을 클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는 동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집권 여당에게 큰 약제들이 많았지만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부정적이었던 민심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호남의 지방선거 승리로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지지자들은 이런 목소리가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지역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칫 지역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선거 운동을 하는 야당의 훌륭한 인재를 놓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선거는 정당과 지역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을 떠나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라하면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익과 국민을 위한 후보를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학생들이 평소 지진 대피 모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그 훈련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재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처럼 재난 대응 안전 훈련의 중요성이 실제 사례에서 입증된 것처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난 현장 대응 능력 향상과 시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범정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광주시는 재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 문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전 훈련에 중점을 둔 ‘광주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4일부터 18일까지 선보인다.

훈련 첫째 날에는 비상 소집을 시작으로 시 청사 화재 대피 훈련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시에 실시된다. 동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진과 화재에 대비한 어린이 행동 요령 교육과 함께 대피 훈련이 진행 된다. 둘째 날에는 광주시 주관으로 자치구·유관기관 등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규모 6.2 지진 발생에 따른 건물 붕괴, 도시가스 폭발, 화재 발생, 유해 화학 물질 누출 등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등 토론에 기반한 지진 복합 훈련이 실시된다. 운전저

수지에서는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 관리 현장 நட목,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 소화기 체험 등 안전 문화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셋째 날에는 지진 및 화재 대응 현장 훈련인 전국민 지진 대피 훈련이 실시되고 오후에는 남구 덕남동 빙고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광주시·남구 합동으로 규모 6.2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 붕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유관기관 합동 재난 현장 대응 수습 복구 종합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현장훈련에서는 최신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해 드론 등 첨단장비는 물론 헬기 3대가 투입돼 인명 구조 장면을 연출하는 등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진행된다. 넷째 날에는 시와 5개 자치구 구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해 구호 물자 자원 관리 훈련과 화재 대비 골든 타임 확보 및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서부소방서~광주시청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시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재난 발생에 대비, 초기 대처 상황 점검을 위한 상황 전파 훈련이 실시되며, 서구 벨벳타운 요양원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이 펼쳐진다.

이번 훈련의 특징은 시민 스스로 체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훈련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시는 이번 훈련 주제를 ‘시민과 함께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정했

다.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 의식 제고와 함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고서인 안자춘추(晏子春秋)에 ‘갈이천정(渴而穿井)’이란 사자성이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다가 일이 발생한 후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학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재난을 비롯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지능지수(IQ)가 평소보다 40정도 떨어진다고 한다. 공포 속에서 인체는 팔·다리·근육 등에 능력이 집중된 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은 줄기 때문에 재난 속에서도 몸이 평상시처럼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평소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전에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체질화되지 않을 경우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되돌릴 수 없고 재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우물을 파놓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것이 우리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는 진정한 이유다.

이번 훈련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사회 재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안전 문화를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려 ‘안전 광주’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기 고



이 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파를 던지면서 재난 관리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 ‘일대 사건’이었다.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뿐이라. 지진이 다른 재난 유형보다 엄청난 위력과 광범위한 발생 범위로 인해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 또한 국민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날 아비규환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이 온 국민의 시선을 붙잡았다. 포항 소재 한동대 학생들의 의연한 지진 대피 모습이었다. 지진으로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이수라장 속에서 대다수 학생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침착하게 학교 대운동장으로 재빨리 대피한 것이다. 건물 내·외부가 무너져 많은 물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백과사전에서는 이날을 ‘교원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한 날’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 유래를 보면 1958년 충남 강경여자중고등학교의 청소년적십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윤석란을 비롯한 단원들은 병환 중에 계신 선생님 위문과 퇴직하신 스승님의 위로 활동을 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63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였

그리고 1965년, 거례의 위대한 스승 이신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다시 정한 이후 정부 주도로 행사를 해 오고 있다. 유신 체제하인 1973년 폐지됐으나 1982년 부활됐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유는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에 있었다.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 며칠 전부터 ‘스승의 날, 담임 교사에게 카네이션 포함 일체 선

졌으면 하는 부담스러운 날이 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날을

스승이 스스로 없애 달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모든 일을 법률로 규제할 수는 없다. 사회적 공분을 낳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새 법률을 만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법률은 인간의 행동을 최소한만 규제해야 한다. 그게 좋은 세상이다. 몇몇 몰상식한 인사를 때문에 스승의 날 고마움에 대한 최소한의 표시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도덕과 상식으로 충분히 정화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지성 서울취재본부장 jk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220-0661 220-0664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220-0541 <FAX 222-0195> 220-0551 220-0551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